

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, 여수, 포항 간다

- 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... SRT 수서~창원·여수·포항 하루 왕복 2회 운행
- KTX는 서울~부산 하루 왕복 3회 증편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(주)에스알에 경전선, 전라선,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,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(금) 개통할 예정이다.
-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~진주, 수서~여수, 수서~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.
-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(참고 참조)으로 확대된다.
-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(창원·진주), 전라선(순천·여수), 동해선(포항)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,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~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.
-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하여 (주)에스알은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,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~부산 구간에 KTX를 일 왕복 3회 증편한다.
-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·발매는 8월 11일부터이며, 운행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-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“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아울러, “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적지만 KTX·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~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홍종길 (044-201-4631)
			주무관	민지호 (044-201-3974)





• SRT 운행횟수

구 분		운행횟수(왕복기준)	
		주중	주말
현행	경부고속선	35	40
	호남고속선	20	20
확대	전라선	2	2
	경전선	2	2
	동해선	2	2

※ 경부고속선 KTX는 왕복 3회 증편

• 정차역(14)

경전선(6)	전라선(7)	동해선(1)
밀양, 진영, 창원중앙, 창원, 마산, 진주	전주, 남원, 곡성, 구례구, 순천, 여천, 여수엑스포	포항